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 단식·혼합복식 우승

윤솔희 추계연맹전 단식 제패...정상희, 김병국과 짝 이뤄 혼복 '금' 김운진-박빛나 복식 동메달 등 금 2·동 1...다음달 전국체전 기대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팀이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 추계연맹전 혼합복식과 단식 정상에 올랐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최근 경기도 안성에서 열린 2022년도 추계한국 실업소프트테니스 연맹전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정상희는 김병국(순창군청)과 조를 이뤄 출전한 혼합복식 결승에서 김만열(순천시청)·염예진(문경시청)조를 5-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정상희는 이로써 지난 국무총리기 전국대회에 이어 혼합복식에서 두번째 왕좌에 올랐다.

윤솔희는 여자단식 결승에서 진수아(육천군

청)와 치열한 접전 끝에 4-3으로 승리, 정상을 차지했다.

그는 준결승에서 김미림(화성시청)을 4-0으로 일축하고 결승에 올랐다.

김운진-박빛나(이상 전남도청)조는 개인복식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이문재 전남도청 코치는 "선수들이 큰 부담 없이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고, 항상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전남도청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오는 10월에 개최될 전국체육대회를 잘 준비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단식에서 우승한 전남도청 윤솔희(왼쪽)와 이문재 코치, 혼합복식에서 우승한 정상희.

한상득 부구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에



한상득(사진 오른쪽) 부구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최근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에 임명됐다.

한 수석부회장은 부구 장애인복지회이사장, 광주보훈체육회장을 역임하는 등 장애인체육 전문가다.

장애인체육인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이사장,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주요 역점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수석부회장은 "장애인 선수 출신으로서 장애인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OK금융그룹 웃맨 럭비단, 광주 연고로 뚝다

광주시체육회와 협약 체결 광주럭비 발전 상호 협력

광주시체육회가 OK금융그룹 웃맨 럭비선수단(이하 OK럭비단)과 광주 연고 협약을 맺었다.

시체육회는 최근 중회의실에서 이상동 체육회장, 최윤 OK금융그룹 회장(대한럭비협회장), 심철의 광주시의회 부의장, 정삼홍 광주시럭비협회장, 최갑렬 광주시체육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체육회-OK금융그룹 웃맨 럭비선수단 광주 연고 협약식'〈사진〉을 열었다.

두 기관은 OK럭비단 운영을 위한 지원, 전국체전 광주 대표팀 출전, 지역 선수들과의 합동훈련 및 재능기부 행사 개최 등 광주럭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OK럭비단은 지난해 3월 창단한 신생 실업팀이

다. 황승업 감독과 코퀴아드 안드레진 코치를 중심으로 총 28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구민, 김상진, 정술 등 국가대표 출신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OK럭비단은 창단 4개월만에 제32회 대통령기 전국종별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선보였다. 시체육회는 광주 연고 럭비단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함으로써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고 선수 연계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에는 무진중과 전남고에서 럭비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이상동 체육회장은 "OK럭비단과 광주 연고 협약을 통해 경기력이 강화되는 등 광주럭비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OK금융그룹과 협의회 OK럭비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튀르키예 강호' 위마즈 당구 PBA투어 첫 우승



튀르키예(터키) 출신의 3쿠션 강호 비를 위마즈(36·엘컴저축은행·사진)가 데뷔 4시즌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다.

위마즈는 12일 밤 경기도 고양시 소노스포츠클럽에서 열린 TS삼푸·푸라담 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김재근(50·크라운해태)을 세트 점수 4-1(15-12, 15-7, 5-15, 15-14, 15-9)로 승리를 거두고 PBA 투어 23번째 도전 만에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종전 최고 성적이 4강이었던 위마즈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상금 1억원과 함께 랭킹 포인트 10만 점을 얻어 단숨에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김재근은 준우승 상금 3400만원과 랭킹 포인트 5만 점을 획득했다.

위마즈는 결승전에서 큰 위기 없이 경기를 풀어갔다.

먼저 1세트와 2세트를 따내 기선을 제압한 위마즈는 3세트 김재근의 하이런 8점에 한 세트를 내줬다.

4세트에서는 10-14로 끌려가다 15-14 역전에 성공해 승기를 잡았고, 5세트도 15-9로 마무리해 자신의 PBA 투어 첫 우승을 완성했다.

위마즈는 "이번 대회 우승은 선수 생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며 "그간 우승을 못 해 압박감이 있었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며 마음을 비운 게 도움이 됐다. 진정한 챔피언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인지

'메이저 퀸' 전인지 이번엔 국내서 KLPGA투어 메이저 4승 노린다

KB금융 챔피언십 15일 개막

전인지(28)는 메이저대회에서 유난히 강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올린 4승 가운데 3승을 메이저대회에서 따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펄 때 손에 넣은 우승 트로피 10개 가운데 3개를 메이저 대회에서 수확했다.

메이저대회는 대개 난도가 높은 코스에서 열린다.

어릴 때 수학을 잘 했던 전인지는 어려운 코스를 분석해 최적의 공략법을 끌어내 실행하는 걸 흥미롭게 여기고, 또 능숙하다.

전인지는 코스가 어려울수록 경기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선수로 꼽힌다.

이번 전인지가 오는 15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이천시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KLPGA투어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 출전한다.

작년 10월 부산에서 열렸던 BMW 챔피언십 이후 11개월 만에 고국 나들이다.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은 어려운 코스일수록

잘하는 전인지의 입맛에 맞는다.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이 KLPGA투어 대회가 열리는 코스 가운데 난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전장(6689야드)이 짧지 않은데 페어웨이가 좁고 구부러진 지점이 많아 정확한 샷이 아니면 공략하기 어렵다. 특히 올하는 러프가 길고 억세다. 폭 20m 안팎의 페어웨이를 벗어나면 80mm 길이의 러프가 버티고 있다.

파4홀과 파5홀에서는 페어웨이에서 그린을 공략해야 버디를 잡아낼 수 있다.

전인지는 지난해에도 이 대회에 출전해 공동 10위에 올라 블랙스톤 이천 골프클럽 공략법을 어느 정도 숙지했다.

박민지(24)는 시즌 4승과 상금랭킹 1위 지키기에 나선다.

박민지가 우승 상금 2억1600만원의 이 대회 정상에 오르려면 상금왕과 다승왕 등 타이틀 경쟁 선두 군히기에 든든한 발판을 마련한다.

상금랭킹 2~4위로 박민지를 뒤쫓는 유해란, 박지영(26), 임희정(22)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부상 여파로 올해 부진에 빠진 작년 챔피언 장하나(30)는 재기를 노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공조2: 인터내셔널
- 2관 공조2: 인터내셔널
- 3관 드래곤볼 슈퍼: 슈퍼 히어로, 9명의 변역가
- 4관 육사오(6/45)
- 5관 공조2: 인터내셔널
- 6관 공조2: 인터내셔널
- 9관 극장판 엄마 까투리: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
- 7관 씨네케틀 육사오(6/45), 한산: 용의 출현
- 8관 씨네케틀 힛트, 블랙폰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II
2인 가극 아파트
일시: 2022. 9. 19.(월) 19:30
장소: 광주공연마루
문의: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2022. 10. 12.(수) 19:30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062-613-8245